

국별 리포트

카자흐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2,725천 km ²	G D P	1,297억 달러(2010년)
인구	15.7백만명	1 인 당 G D P	8,261달러(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Kazakh Tenge
대외정책	친러시아, 대서방 우호관계 유지	환율(달러당)	147.30(2010년)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9위의 영토대국으로 다민족, 다종교 국가이며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금, 구리, 철광석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구소련 시절 주요 곡물 및 광물 생산기지였던 동국은 1991년 구소련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외 개방 개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석유·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증가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중국, 서방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전방위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10.7	8.9	3.2	1.2	5.4
재정수지/GDP	0.8	-1.7	-2.0	-3.0	-3.0
소비자물가상승률	8.6	18.8	9.5	6.3	8.0

자료: OECD CRAM, EIU.

□ 2010년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 추정

- 카자흐스탄 경제는 2009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2% 하락한 1.2%를 기록하며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시현함.
- 2010년에는 유가 상승 및 국내외 경기회복에 힘입어 5.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도 고유가 및 국내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안정화 추세 시현

- 2009년 소비자물가는 국내 수요 감소와 국제 상품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6.3%를 기록하며 전년의 둔화세가 지속되었음.
- 2010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다소 상승한 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1년에는 다시 5~6%대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리가능한 수준

- 2009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가 약세로 인한 석유 수출 관련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GDP 대비 3%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음. 2010년에는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석유국부펀드(National Fund of Kazakhstan: NFRK)에서 법정한도액인 80억 달러를 예산에 전용했으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적자폭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 1월부터 석유수출세가 톤당 40달러(2010년 12월까지 톤당 20달러 부과)로 인상됨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1년에는 적자폭이 소폭 축소되어 GDP 대비 약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정책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출, FDI, 정부 세입 등 경제전반이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또한 제조업 기반은 취약해 자본재, 소비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2010년부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경제 다각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혁신 개발 5개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민감

- 카자흐스탄은 국내 자본 축적 부족으로 투자자금을 주로 해외차입과 FDI에 의존해 왔으며, 그 결과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해외차입이 곤란해짐에 따라 은행들이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잠재력 및 자원 수출을 통한 자생력 보유

- 카자흐스탄은 원유, 가스를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석탄, 우라늄, 크롬, 아연 등)이 매우 풍부해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음.

<2009년 말, 매장량 기준>

- * 원유: 398억 배럴, 세계 9위
- * 천연가스: 1.82조 입방미터, 세계18위
- * 석탄: 313억 톤, 세계7위
- * 크롬 세계 1위, 우라늄 세계 2위, 아연 세계 4위 등

- 카자흐스탄의 주요 유전인 Tengiz 유전(미국 Chevron 주도) 및 Karachaganak 유전을 비롯해 최대 규모인 Kashagan 유전(이탈리아 ENI 주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 부문의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높음.

□ 2010년 산업혁신 개발 5개년 프로그램 추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금융산업 안정화 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2009~10년 Action Plan을 추진했고 2010년부터는 산업 혁신 개발 5개년 프로그램을 추진해 경제 다각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프로그램 실행 기간 중 인프라 구축 및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 노동생산성을 높일 계획임.
- 이러한 프로그램 성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프로그램 2년차인 2011년 중 실행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중 일부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예정

- 마시모프 총리는 2010년 11월 국영기업 정부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했으며 매각 규모는 약 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영지주회사인 Samruk-Kazyna는 KazMunayGaz(국영석유가스사), Kazakhtelecom(국영통신사), Temir Zholy(국영 철도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2011년 초 구체적인 국영기업 민영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 **탱게화 통화가치 소폭 상승**

- 카자흐스탄 정부가 2009년 2월 외환보유액 감소 및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용인하여 탱게화가 달러화 대비 약 20% 평가절하되었음(달러당 150탱게 수준).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와 고유가에 힘입어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10년 2월부터 탱게화 환율변동폭을 달러당 127.5~165탱게로 확대했음.
- 이에 2010년 들어 탱게화는 달러당 147탱게 수준을 유지하며 통화가치가 소폭 상승했으며, 2011년 중에는 달러당 평균 141~142탱게 수준을 기록하며 통화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1,999	-8,322	6,280	-4,249	2,509
경 상 수 지 / G D P	-2.5	-8.8	3.9	-3.9	1.9
상 품 수 지	14,642	15,091	33,519	15,159	29,401
수 출	38,762	48,351	71,971	43,972	59,846
수 입	24,120	33,260	38,452	28,813	30,445
외 환 보 유 액	17,750	15,777	17,872	20,720	29,724
총 외 채 잔 액	74,148	96,900	107,700	111,700	124,7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91.1	94.2	79.5	103.6	96.1
D . S . R .	16.7	32.6	25.5	43.5	29.4

자료: OECD CRAM, EIU.

□ **경상수지 흑자 전환**

- 2009년 상품가격 하락, 수출수요 감소로 인해 경상수지는 2008년 흑자 전환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음. 2010년에는 수출 호조 및 국제 원자재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GDP 대비 1.9% 수준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는 국내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 및 지속적인 서비스수지 적자가 예상되나 그 폭은 수출 증가폭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상수지는 GDP 대비 약 3.1%의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총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 카자흐스탄은 2006~08년까지 연평균 40%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보였으나, 상품가격 하락과 원유 및 천연가스 이외의 수출 수요 감소로 2009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6% 감소했음.
- 2010년에는 유가 상승과 국제 원자재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회복되어 약 650억 달러의 총수출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증가세 유지

- 카자흐스탄의 외환보유액은 석유수출 관련 재정수입 증대, 에너지 개발관련 FDI 유입 지속 등에 힘입어 2005년 말 61억 달러에서 2009년 말 207억 달러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음.
- 2009년 중 약 95억 달러 규모를 기록한 FDI 유입은 2010년 2분기에만 3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2010년 외환보유액 규모도 2009년에 이어 월평균 수입의 약 4~5개월 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총외채규모 증가세 둔화

- 카자흐스탄의 외채 규모는 은행 등 민간부문의 해외차입 급등으로 인해 2005년 434억 달러에서 2008년 1,077억 달러로 3년간 약 150% 증가했음.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해외차입 여건 악화로 2009년과 2010년 중 총외채 규모는 각각 1,117억 달러와 1,247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1,300억 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수준의 원리금 상환부담 점진적 완화

- 2006~08년 꾸준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본지사간 대여금 및 은행의 해외차입금 상환부담 증가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3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09년 중 수출의 급감으로 DSR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각각 43.5%와 220%를 상회했음.
- 2010년에는 수출증가세 회복으로 DSR이 29.4%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 전망치는 이보다 다소 낮은 26.4%으로 카자흐스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중심의 독재체제 지속

- 1991년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지난 20년간 장기 집권해 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두 차례 개헌을 통해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을 열었으며, 2005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음. 또한 2007년 8월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여당(Nur Otan당)이 88.1%의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모든 의석을 독점했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도 출마할 예정이며 큰 문제없이 4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도 2010년 6월 발효된 "국가 지도자(leader of the nation) 법"에 의거 여전히 국내외 정책 수립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정 지속 예상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성 지출을 증대하며 국민 불만을 잠재우고 있으며, 야당과 일부 반대파 정당이 대통령에 대항할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집권세력 내 권력집중 방지를 위해 수시로 개각을 단행하고 언론도 적절히 통제하고 있어 정치적 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경제성장 지속과 국민 소득수준 향상으로 사회불안 요인은 크지 않은 편

- 오랜 독재체제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 수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편임.

- 세계 경제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연도별 실업률 추이: 7.8%('06) -> 6.6%('08) -> 5.5%('10, 추정)

- 다민족(카자흐계, 러시아계 등), 다종교(이슬람 수니파, 러시아 정교 등) 사회지만 민족간 갈등 및 종교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다수의 러시아계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키르기즈 등 주변국의 사회 불안 파급 경계

- 카자흐스탄과 유사한 장기 독재체제를 유지해 온 키르기즈는 2010년 4월 가중된 경제난과 더딘 민주화 과정에 불만을 표출한 반정부 시위가 유혈사태로 확산되었음. 그 결과 대통령이 사임하고 과도정부가 구성된 데 이어, 과도정부 수반이 2010년 7월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카자흐스탄은 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을 바탕으로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본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통제를 통해 국민 불만을 잠재우고 있어 단기간 내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변국의 소요 사태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3. 국제 관계

□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관계 강화

- 원유 수출루트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양국간 협력관계는 강화 추세임.

- 러시아와의 경제, 안보 협력은 여전히 긴밀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7월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벨로루시 3국간 관세동맹이 발효되었음.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추진은 이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OSCE 의장국으로 국제적 위상 강화

- 2010년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 최초로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12월 정상회의를 아스타나에서 개최했음.
- OSCE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정치 자유와 인권보장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12월 정상회의를 큰 무리없이 치루어 내면서 카자흐스탄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현황

□ OECD 등급은 5등급 유지

- 2009년 10월 OECD는 은행부문 내 높은 무수익여신(NPL) 비중(2009년 10월 현재 19.7%),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이 과다한 산업구조, 과중한 외채부담을 이유로 카자흐스탄의 등급을 종전 대비 한 등급 하락한 5등급으로 조정했으며, 이후 2010년 1월과 2011년 1월 개최된 OECD CRE회의에서도 등급을 조정하지 않음.

* 2011년 1월 회의에서는 카자흐스탄 은행부문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5등급을 유지함.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전망 회복세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Fitch사는 카자흐스탄의 장기등급을 2008년 11월 BBB-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으나 Moody's와 S&P는 등급을 조정하지 않음.

- Moody's는 2009년 5월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의 불안정 및 유가 약세를 이유로 등급 전망을 종전 Stable에서 Negative로 변경했으나 2010년 4월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다시 등급 전망을 Stable로 조정함. S&P의 경우 2008년 4월 Negative로 조정했던 등급 전망을 2009년 5월 다시 Stable로 변경한 후 이를 유지하고 있음. Fitch는 2009년 12월 등급 전망을 Negative에서 Stable로 조정한 데 이어 2010년 12월 다시 Positive로 조정했음.

□ 주요 ECA의 인수태도

- 미국 수은: 중단기 조건부 인수 가능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2. 외채상환태도

□ OECD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있음

- 2010년 9월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327.9백만 달러, 중장기 2,239.4백만 달러이며, 이 중 단기 25.7백만 달러(7.8%) 및 중장기 120.2백만 달러(5.4%)가 연체 중이며 중장기 연체금액 중 25.1백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

□ 국영 상업은행 채무재조정 계획안 확정

- 카자흐스탄 최대 상업은행인 BTA은행은 2009년 2월 정부가 지분 70% 이상을 매입함으로써 국유화되었으나, 2009년 3월 이후 일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들과 채무재조정 협상을 진행해 2010년 5월 채무조정계획안이 통과되었음. 2010년 6월 및 8월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의 승인과 법원의 최종판결을 거쳐 채무조정계획안이 확정되었음.
-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회복세, 부동산 가격의 반등 가능성,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 및 BTA은행의 광범위한 영업망을 감안할 때 BTA은행의 영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당행 전대자금 채권액 2,585만 달러 중 현금회수분 36.9만 달러는 2010년 9월에 기입금되었고 채권 전환분 2,353만 달러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및 2014년 7월 각각 이자 및 원금상환이 개시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카자흐스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546	348	308	604	합성수지, 철도차량부품 등
수 입	257	350	166	334	알루미늄, 합금철선철 및 고철 등
합 계	803	698	474	938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1992. 1. 28(북한과는 1992. 1. 28 수교)

□ 주요 협정: 무역협정('92), 문화협정('95), 투자보장협정('96), 과학기술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9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04), 한국해외봉사단사업협정('06) 등

□ 양국간 교역규모: 9.4억 달러(수출 6.1억 달러, 수입 3.3억 달러)

- 2009년 중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양국의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해 교역규모가 4.2억 달러로 급감했으나 2010년에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약 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124%의 성장률을 나타냈음.

* 주요 수출품: 합성수지, 철도차량부품 등

* 주요 수입품: 알루미늄, 합금철선철 및 고철 등

□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해외직접투자 규모

- 2008년 8.2억 달러 규모까지 증가했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2009년 1.4억 달러 및 2010년 1~9월 1억 달러로 급감했음. 2010년 9월 말 현재 총 190건, 18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등임.

V. 종합의견

- 카자흐스탄 경제는 2009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1.2%를 기록했으나, 2010년에는 유가 상승 및 국내외 경기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다시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됨. 2009년 상품가격 하락, 수출수요 감소로 인해 적자로 반전되었던 경상수지는 2010년 유가 상승과 국제 원자재 수요 증가 등으로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됨.
- 정치적으로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 하에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수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편이어서 사회 불안 및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음.
-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관세동맹 체결 등으로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 구소련 국가 중 최초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책임조사역 허정욱 (☎02-3779-6653)
E-mail : johuh@koreaexim.go.kr